

1950년대 안동민의 라디오동화 연구*

최 미 진**

차 례

- | | |
|----------------------------|------------------------|
| I. 서론 | III. 라디오동화의 창작적 지향과 실천 |
| II. 라디오방송 <어린이시간>과 『이상한 꿈』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1950년대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를 통해 당시 어린이방송의 저변과 라디오동화의 특징적 면모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안동민은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 담당자였던 한용희의 추천으로 라디오동화 창작에 힘쓰게 되었다. 드물게 라디오동화를 묶어 『이상한 꿈』을 출간했던 작가의 작품은 현재 10편의 단편동화가 문헌으로 남겨져 있다. 당시 다른 매체에 발표했던 기존 작품을 방송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까닭에 그의 라디오동화를 모두 순수 창작물로 단정 짓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행은 라디오동화의 질적·양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343)

** 부산대 교양교육원 전임대우강사

로 보인다.

안동민의 라디오동화가 지닌 특징적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 라디오매체에 걸맞은 문학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들은 활자매체에 발표된 동화와 다름없다. 그것이 활자매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방송대본의 형식을 따로 두지 않았던 것인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둘째, 안동민은 라디오동화의 창작원리로 ‘동심’에 주목하고 있다. 동심은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획득 가능한, 즉 어린이의 순수를 표상한다. 창작이 그러한 동심을 획득한 작가의 몫이라면, 수용은 그 동심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셋째, 라디오동화의 창작방법으로 단순성 확보에 주력했다. 단순성은 주 청취자인 어린이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자 어린이문학의 외적 자질이다. 우화 형식에 비해 다른 서사형식의 라디오동화들은 공명을 지향하는 단순성을 획득하는 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넷째, 어린이의 규준을 이끌어내는 계몽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작중인물은 작가의 계몽적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 장치로 존재했으며, 이때 작가는 계몽적 관찰자로서 ‘착한 어린이’를 규준으로 삼고 있었다. ‘착한 어린이’는 어린이의 순수를 간직한 이상적 어린이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당시 국영방송의 경직된 운영지침과 어린이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린이시간>에 깊이 관여했던 강소천의 영향 등이 복합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듯 안동민은 당대 창작환경에 조용하여 라디오동화 창작에 부심한 흔적을 역력히 보여주었으나, 문학적 성과는 편차가 컸다.

주제어 : 안동민, 라디오동화, 『이상한 꿈』, 『방송』, 라디오방송,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 동심, 단순성, 계몽성, ‘착한 어린이’

I. 서론

안동민(1931~1997)은 특이한 이력을 지닌 문인이다. 1948년 소설 「소년의 죽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¹⁾ 1951년 『경향신문』의 현상연재소설공모에 『성화』가 당선되어 주목을 받았다.²⁾ 이어 1953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증편 「밤」이 입선되기도 했다. 이즈음 그는 번역 활동을 병행했는데,³⁾ 동서양의 유명 소설뿐 아니라 자기개발서, 그리고 전공서적 등을 꾸준히 번역 출간하였다.⁴⁾ 그리고 1955년 「춘원 이광수론」으

1) 안동민의 초창기 작품들은 「서글픈 이야기」(『주간서울』, 1948.5.7), 「여류문사」(『문예경기』, 1948.8), 「어떤父子」(『문예경기』, 1949.1) 등으로 일상사를 다룬 소품 형식을 띠고 있다.

2) 1952년 벽두부터 『경향신문』은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현상연재소설모집’을 실시하였고, 3백만원 당선작은 바로 안동민의 『성화』였다. 심사위원 유치진의 심사평에 따르면, 이 작품은 ①구성이 비교적 조직적이어서 테마가 또렷이 나타나 있고, ②평이한 표현으로써 각 인물의 성격이 살았으며, ③내용이 건전한 윤리성에 입각되어 있고, ④작가로서의 장래성이 엿보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新夏문단의 청신제」, 『경향신문』, 1952.5.18, 2면. 이 소설은 1952년 5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149회 연재되었는데, 이는 당초 공고보다 연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당시 김광주 필화사건으로 연재 중이던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가 휴재를 거듭하다 중단되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미진, 「한국전쟁기 『경향신문』의 문화면과 김광주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357~361쪽.

3) 안동민은 한국전쟁기부터 생계형 번역가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식은 당시 안동민의 번역이 여러 언어가 뒤섞인 점으로 미루어 원서보다 일서 중역 수준이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과정에 대하여」,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화연구회 편, 국학자료원, 2000, 67쪽.

4) 1950년대부터 동민문화사를 창립하기 이전까지 발표된 안동민의 번역서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야마오카 소오하찌, 『대웅(大雄)』, 지경사, 1953.; 에밀리 브론테, 『풍구(風丘)』, 희문사, 1953, 1956, 1961(여원사, 1959).; 로렌스 굴드, 『행복의 발견』, 박영사, 1955, 1957.; 제임스 힐튼, 『잃어버린 지평선』, 신태양사, 1955.; M. 오우드, 『고아 마리아』, 청문각, 1956, 1959(교양사, 1958, 1959).; H. B. 아워스트리트, 『이해와 오해: 사회생활심리학』, 신교문화사, 1957.; 제임스 도티, 『벤저민 프랭클린전』, 정민문화사, 1957.; 래스리 티싸어트, 『완전한 결혼독본』, 진명문화사, 1957.; 어니스트 헤밍웨이, 『해는 다시 뜬다』, 일신사, 1958(아동문화

로 추천되어 비평가로도 활동했고,⁵⁾ 1957년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61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동민문화사를 창립하여 출판 경영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⁶⁾ 1970년대 심령과학자로 변모하여 다양한 저작 활동을 이어갔다.⁷⁾

안동민의 창작 활동에서 두드러진 행보는 작품집 발간이다. 1954년 첫 작품집 『성화(聖火)』(희문사)⁸⁾를 필두로 『생(生)』(희문사, 1955), 『문(門)』(태백사, 1957), 『이상한 꿈』(경진사, 1958), 『재생의 길』과 『단편집』(천리문화사, 1960), 『익춘(翌春)』(수도문화사, 1961) 등 꾸준히 작품집을 내놓았다. 명망 있는 작가들조차 작품집 발간이 힘들었던 1950년대 출판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일이다. 번역가로 활동하며 출판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번역서 출간이 잦았던 희문사에서 초기 작품집을 발간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번역가로서의 삶만큼이나 작가로서 작품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전쟁 중 신문소설로 이름을 알린 작가의 길은 그리 평

사·진명문화사, 1960).; 에밀리 브론테, 『애정(哀情)』, 교양사, 1958(희문사, 1961).; A. 모라비아, 『사랑하는 사람들』, 양문사, 1959, 1960.; A. 모라비아, 『한낮의 망령』, 박영사, 1959.; 임어당, 『생활의 발견(속)』, 삼영사, 1959.; A. 모라비아, 『사랑하는 사람들』, 양문사, 1960.; H. 그린워드, 『코얼 걸』, 수도문화사, 1961.; N. V. 고폴리, 『세계문학전집 24: 죽은 혼, 외투』, 을유문화사, 1961.

- 5) 안동민, 「춘원 이광수론」, 『현대문학』 제6호, 1955.6, 44~51쪽.
 6) 동민문화사는 1961년 12월 4일 창립되었다. 이때 안동민은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와 외국의 사례들에 비추어 자신과 같은 출판사 이름을 정했다 한다. 안동민, 「전작집을 내면서」, 『동민대표문학선』 제1권, 동민문화사, 1971, 3쪽. 그러나 1974년 동민문화사는 파산하고 마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것은 1972년에 발간했던 『한국아동문학선집』의 실패였다. 안동민, 『심령진단』, 서울출판사, 1994, 204쪽.
 7) 심령과학자로의 변모는 부산 출장에서 오던 길에 만난 김봉룡 씨의 이야기에 힌트를 얻은 이후라고 자술하고 있으며, 동민문화사의 마지막 출판 또한 심령과학서 『보병궁 복음서』이었다. 위의 책, 204쪽.
 8) 안동민의 『성화』는 최초로 중국어로 번역·출간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안동민 『성화』 中서 출판」, 『경향신문』, 1995.9.2, 13면.

단치 않았다. 초창기부터 그의 작품 활동은 대부분 문예지보다⁹⁾ 일간신문이나 대중잡지, 라디오방송 등을 넘나들었다. 당대 신진 작가들의 어느 선집에서도 그의 작품을 찾아볼 수 없다.¹⁰⁾ 이러한 가운데 안동민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독후평 수준에서 일부 다뤄졌을 뿐이다. 정한숙¹¹⁾은 작품집 『문』이 현실을 작품화하는 작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특유의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단편의 체질”보다 “장편의 호흡”을 가진 작가로 간주했다.¹²⁾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당대 신진 비평가 유중호가 『익춘(翌春)』을 안동민의 “처녀 창작집”으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¹³⁾ 그만큼 안동민은 문예지 중심의 당대 문단에 쉽게 편입하지 못한 채 국외자로 취급되었던 셈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가가 내놓은 전집들¹⁴⁾도 함께 묻히고 말았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린이문학¹⁵⁾, 특히 라디오동화¹⁶⁾ 작가로서

9) 1950년대 지명도 있는 문예지에 실린 작품은 「기회」(『자유문학』, 1958.11)와 「어떤 고백」(『사상계』, 1958.12), 「익춘(翌春)」(『자유문학』, 1960.2) 정도에 그친다.

10) 안동민은 “많은 출판사에서 국내 작가들의 전작들이 나왔지만 “꽂뜨 하나 실리게 없”을 만큼 자신이 “문단에서는 언제나 버림받은 존재”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안동민, 「전작집을 내면서」, 『동문대표문학선』 제4권, 동민출판사, 1974, 4쪽.

11) 정한숙은 195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안동민과 함께 입선작가로 당선되면서 친밀한 교분을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12) 정한숙, 「독후감-안동민 소설집 “문”」, 『경향신문』, 1958.1.30, 4면.

13) 유중호, 「1961년의 白書 小説」, 『동아일보』, 1961.12.8, 4면.

14) 안동민은 두 차례 자신의 저작을 정리하여 전집으로 묶어낸 바 있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 동민출판사에서 『동문대표문학선』 전5권을 발간하였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성음각에서 『안동민전집』 전15권을 내놓았다. 후자는 초기작부터 심평과학자로 전환한 이후 저작물과 자서전 등을 실고 있다.

15) 안동민을 어린이문학가로 거론하는 경우는 대부분 과학소설 『우주소년삼총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 소설은 1970년 3월부터 9월까지 『새소년』에 연재되었으며, 이후 한낙원의 「2064년」과 함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한낙원·안동민, 『2064년/우주소년삼총사』, 동민문화사, 1972.

16) 방송동화는 TV매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통용되었던 용어다. 현재 ‘TV동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매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점

안동민의 자리다. 1958년 ‘방송동화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발간된 『이상한 꿈』에 눈길을 두고자 한다.¹⁷⁾ 작가의 회고대로 1958년 당시 “출판계의 사정이 어려울 때” “좁은 門안 중에서도 보다 좁은 門”¹⁸⁾이었던 것이 동화집 발간이었다. 강소천과 같은 명망 있는 어린이문학가도 아니었고, 당대 어린이문단에서 주목받았던 신진 작가와도 거리가 있었던 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제 ‘방송동화집’을 돌과구로 삼아¹⁹⁾ 일반 청취자이자 독자대중들과 소통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방송월간지 『방송』에서 다루는 정도에 그쳤을 만큼²⁰⁾ 이 동화집은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상한 꿈』은 1950년대 라디오방송에서 작가의 창작활동과 당시 라디오동화의 면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지금까지 라디오동화는 여느 라디오서사와 마찬가지로 방송 대본뿐 아니라 문헌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동시대 발간된 어

에서 이 글에서는 방송동화 대신 라디오동화로 명명하기로 하겠다. 아울러 안동민이 동화와 소년소설을 구분하여 밝히지 않았고, 『이상한 꿈』의 부제를 ‘방송동화집’로 둔 점 등을 고려하여 라디오동화로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7) 『이상한 꿈』에 수록된 작품들은 『동민대표문학선』에 다시 수록되었다. 『동민대표문학선』은 작가가 “지나간 과거를 일단 정리하는 뜻에서 꾸며진” 것으로, 초기작부터 발간 당시까지 저작을 두루 다루었다. 단편집 3권과 장편소설, 중편소설집 각 1권인 전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한 꿈』에 실린 작품들은 제3권에 실려 있다. 구체적인 권별 제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권은 단편집 『어느 날의 아담』, 2권은 단편집 『백양선생』, 3권은 단편집 『방생』, 4권은 장편소설 『사랑이 찾아들 때』, 5권은 중편소설집 『숙영남자전』이다.

18) 안동민, 「후기」, 『이상한 꿈』, 경진사, 1958, 135쪽.

19) 창작집 발간 당시 라디오방송 작품들이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독자대중들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는데, 단적인 예로 『인생역마차』를 들 수 있다. 『인생역마차』는 솔루션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에서 방송된 작품들을 추려내어 희망사에서 1956년부터 단행본으로 출판했는데, 권수를 더할 정도로 출판시장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미진,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365~373쪽.

20) 「방송동화집 『이상한 꿈』」, 『방송』 제3권 제3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3, 60쪽.

린이문학 작품집 또한 라디오매체를 부각시킨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1950년대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를 통해 당시 라디오 어린이방송의 저변과 작가의 라디오동화가 지닌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라디오방송 <어린이시간>과 『이상한 꿈』

안동민은 1950년대 라디오방송,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많은 소설과 수필, 그리고 동화를 발표하였다. 특히 그가 라디오동화에 힘쓰게 된 데에는 한용희의 역할이 컸다.

이 작품들을 쓰게 된 것은 오로지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어린이계를 맡아보고 있는 한용희 형의 권고에 의한 것이며, 한형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이만큼이나 작품을 쓸 수 있었을지 저우히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에도 동화를 쓴다는 것은 보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²¹⁾

한용희는 1950년대 가장 오랜 기간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을 담당한 책임자이자 지휘자였다.²²⁾ 1954년 5월 1일부터 안병원 후임으로 <어린이시간>을 담당하였고, 1958년 7월 음악계로 떠났다가 이듬해 7월

21) 안동민(1958), 앞의 책, 134쪽.

22) 1950년대 <어린이시간>에서 음악 시간은 문예, 과학, 도의 시간에 비해 훨씬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데, 이는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혜택을 주려 한 책임자 한용희의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그는 1954년 실무를 담당한 후 같은 해 10월에 제1회 방송어린이음악 콩쿠르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전시동요 위주의 방송노래를 생활동요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섰다. 한국방송공사 편,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290~291쪽.;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8, 127~141쪽.

에 복귀하였다. 안동민은 전후(戰後) 한용희가 <어린이시간> 담당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라디오동화 창작을 권고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용희의 역할을 지적한 “한 형의 격려가 없었드라면” 이하의 대목이다. 이는 한용희에 대한 감사를 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맥들이 놓여 있다.

첫째, 라디오동화 창작과정에서 예상외로 실제적 곤란을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안동민은 <어린이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라디오동화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방송을 통해 어린이문학가로 입문한 셈인데, 그에게 동화는 “얼마나 쓰기 어려운가 하는 것을” “뺄지 리게” 느끼게 했던 “힘든 일”이었다. 같은 글에서 작가는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올찬 작품을 많이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중에 하나”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²³⁾ 동화집을 펴내는 순간에도 작가는 동화 창작에 대한 지독한 회의(懷疑)와 간절한 소망이라는 양가적 태도를 스스럼없이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라디오매체의 특성상 라디오동화는 예술적 성과와 청취자들의 호응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내려놓기 힘들다.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 라디오매체는 청취자층이 다양하고 반응도 더 빠른 편이다. 라디오동화도 예외는 아니어서 창작과정에서 청취자들의 기대와 반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라디오동화의 문학적 성과를 드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만큼 실제 현실과 배리되는 경우가 더 많다. 더욱이 그 모든 것이 국영방송 서울중앙방송국의 방송 지침을 벗어나기 힘들었음은 물론이다.²⁴⁾ 이것이 안동민의 양가적 태도를 새내기 어린이문학가의 자

23) 안동민(1958), 앞의 책, 135쪽.

24) 1958년 1월 25일 ‘일반적 기준에 관한 내규’가 제정되기 전까지 서울중앙방송국은 일정한 편성기준 없이 “정부 당국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선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운영되었다. 한국방송공사 편, 앞의 책, 269쪽.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중앙방송국은 일선과 후방 국민들에게 전의(戰意)를 앙양하고 반공의식을 고취

기역량에 대한 비판적인 점검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안동민은 라디오동화의 창작과정에서 예상외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한용희의 “격려” 속에서 창작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안동민이 당시 라디오문학 창작에 두각을 드러냈을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 이는 한용희가 안동민을 라디오동화 작가로 이끌어낸 이유와 관련된다. 안동민이 라디오방송을 택하게 된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1950년대 신진작가들이 라디오문학에 진입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1950년대 라디오문학의 창작 담당층은 열악한 창작환경과 문단의 냉담한 시선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라디오방송의 특성상 창작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미미했다. 단 한 번 방송되고 나면 사라져버렸고, 원고료도 다른 매체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비평가들뿐 아니라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도 라디오문학은 저평가되었다.²⁵⁾ 때문에 외부 작가들의 섭외가 쉽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방송국은 대송출 송신소인 연희연주소를 개소하는 등 방송시설을 속속 개선하면서 1956년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종일방송을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의 개편과 신설이 잇따랐던 만큼 라디오방송 작가도 대거 필요했다. 전속 작가나 일부 외부 작가들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영수, 곽학송, 박연희, 김성한, 손창섭 등 전후 신진작가들의 영입이 이루어졌다. 당시 신진작가들은 발표매체 확보와 원고료 수입에 전전공공하던 상황이었고, 작가적 입지를 다듬고 확장시킬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²⁶⁾ 이러한 가운데 신진작가들이 국

하여 멸공승리의 신념을 굳게 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휴전이 확정되어 환도한 직후에는 “재건의식의 고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을 찾은 1955년에는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오락과 교양의 양립”으로 목표 전환을 꾀했다. 위의 책, 285~286쪽. 이렇듯 1950년대 라디오방송은 운영지침이 범박한 듯해 보어도 국가주의의 요구에 따라 재편되어 운영되는 국영방송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25) 최미진, 「손창섭의 라디오 단편소설 「비둘기 한 쌍」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13쪽.

영 라디오방송의 요구와 쉽게 부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상공모와 신춘문예로 작가로 첫걸음을 뗀 안동민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듯하다.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안동민은 라디오소설 작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이러한 이력은 우선 『동민대표작선집』(이하 『선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 <어떤 모녀> <어느 선배의 경우> <삽화> <어느 날 밤> <하나의 맹서> <딸을 보내고> 등은 모두가 국립 중앙방송국을 통해서 방송된 방송소설들이다.

방송소설이 갖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오서는 짧은 대로 꽤 고심을 한 소품들이다.²⁷⁾

안동민은 ‘후기’에서 『선집』 제3권에 「어떤 모녀」를 비롯한 6편 이상이 라디오소설임을 밝히고 있다. 그 소설들은 말미에 창작 시기를 밝혀 두고 있으나, 방송 프로그램명과 시기가 불분명하다. 당시 중앙 일간지들과 방송 월간지 등을 살펴본 결과, 몇몇 작품들은 라디오방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선집』 제3권 소재 안동민의 라디오소설과 라디오방송 개관

작품명	창작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수록지	비고
어떤 모녀(母女)	1957.9.10	수필낭독	1957.6.5(수) 21:45~22:00	『선집』 제3권 『방송』(1957.10)	개작 ²⁹⁾
삽화(插話)	1957.5.8			『선집』 제3권	

26)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36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365~435쪽.

27) 안동민, 「후기」, 『동민대표문학선』 제3권, 동민문화사, 1974, 488쪽.

28) [표 1]은 역사문헌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1950년대 주요 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1950.1.1~1959.12.31)와 월간방송잡지 『방송』(공보실 방송관리국, 1956.9~1959.12), 그리고 안동민의 『동민대표작선집』(동민문화사, 1971~1974)을 조사하여 재구성한 결과다.

어느 날 밤	1957.7.15	소설낭독	1957.4.28(일) 23:15~23:30	『선집』 제3권	
딸을 보내고	1958.8	낭독	1958.10.23(목) 21:10~21:30	『선집』 제3권	
어느 선배의 경우	1957.8			『선집』 제3권	
하나의 맹서	1958.1.8.	신춘방송 소설릴레	1958.1.8(수) 21:05~21:20	『선집』 제3권 『방송』(1958.10)	
이런 경우	1956.1	소설낭독	1956.3.31(일) 23:15~23:30	『선집』 제3권	
죄없는 책략(策略)	1955.9			『선집』 제3권	
적의(敵意)	1951.11.3			『선집』 제3권	
초연(初煙)	1953.9.5			『선집』 제3권	
달팽이와 이 병사 (兵士)	1952.5.22			『선집』 제3권	

[표 1]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안동민이 1958년 초 「하나의 맹서」로 <신춘방송소설릴레>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신춘방송소설릴레>는 1958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10회에 걸쳐 오후 9시 5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다. 참여 작가들은 최요안, 김이석, 박영준, 유주현, 손창섭, 박연희, 염상섭 등이며, 회당 1인 이상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1957년까지 라디오소설로 명망을 쌓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요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전속작가들이다. 안동민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는 점은 대표적인 라디오소설가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집』에 실리지 않았지만, 안동민이 라디오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소년」³⁰⁾을

29) 창작일자와 발표일시를 고려해 본다면, 라디오소설 「어떤 모녀」는 <수필낭독> 프로그램에 방송된 수필을 개작하여 다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수필과 라디오소설을 다르게 창작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나, 제목이 같다는 점과 둘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짧다는 점들에 주목한다면 개작 가능성이 더 크다 하겠다.

30) 「소년」은 1955년 6월 17일 일요일 22시 15분부터 30분까지 <소설낭독> 시간에 방송되었다. 「라디오방송안내」, 『한국일보』, 1955.6.17, 4면.

발표한 1955년 즈음이다. [표 1]에서 보듯 라디오소설을 본격적으로 창작한 것은 1957년이다. 한용희는 안동민의 이러한 이력에 주목하고, <어린이시간>에 방송할 동화 창작을 독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안동민은 한용희와의 만남을 계기로 1950년대 중반 이후에야 어린이문학에 눈길을 돌렸다 하겠다.

1950년대 중반 서울중앙방송국의 대표적인 어린이방송 프로그램은 <어린이시간>³¹⁾과 <라디오유치원>³²⁾이다. 특히 <어린이시간>은 1954년 4월 개편 이후 15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이 연장되면서 일신한 면모를 드러냈다. 매일 6시부터 5분간 ‘어린이신문’을 편성하고 6시 5분부터 30분까지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했다. 월요일은 ‘동화’, 화요일과 목요일은 ‘노래앨범’, 수요일은 퀴즈프로그램 ‘무엇일까요’, 금요일은 ‘노래교실’, 토요일은 ‘노래극’ 또는 ‘작은 음악회’, 일요일은 공개프로그램 ‘누가 누가 잘하나’가 편성되었다.³³⁾ 이러한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은 1956년 10월 이중방송 실시와 그해 12월 주말 종일방송 실시, 그리고 1957년 6월 전면 종일방송 실시 등에 따라 부분적인 요일 변경과 함께 세부 프로그램이 확충되었다.³⁴⁾

31) <어린이시간>은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1년 12월 16일 프로그램 개편에서 부활되었으며, 배준호 담당으로 매일 오후 6시 30분에 15분간 편성되었다. 한국전쟁기 <어린이시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시동요였으며, 방송어린이노래회를 맡아보던 안병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방송공사 편, 앞의 책, 290쪽.

32) <라디오유치원>은 전시에 중단되었던 <유아시간>의 후신으로 1956년 5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장준영 담당, 임정은 지도로 매일 9시부터 15분간 색다른 내용으로 편성·진행되었다. 위의 책, 291쪽.

33) 요일별 프로그램의 띠 흐름은 1950년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라디오안내’를 조사·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요일별 프로그램은 대략적인 구성을 제시한 것으로, 개편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요일 이동과 더불어 ‘라디오도서관’ 등의 다른 하위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시간을 단축하여 ‘연속어린이극’ 등을 함께 방송하기도 했다. 『라디오안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1950.1.1~1959.12.31.

34) 대표적인 신설 프로그램은 <착하게 아름답게>와 <피돌이 문답>이다. 이 프로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발표된 라디오동화는 라디오동요나 라디오동극에 비해 비중은 낮았지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라디오동화는 길이에 따라 단편동화와 장편동화로 구분된다. 창작 여부에 따라 창작극과 번역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번역극은 대부분 서구의 유명 장편동화였다.

(1) 이 책에 실린 동화와 소년소설은 「철이와 우산」(한국일보 소재) 한 편만 빼어 놓고는 모두 HLKA(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에 방송한 작품들이다.³⁵⁾

(2) <이상한 꿈> 등 12편은 주로 어린이시간에 방송된 방송동화들이다. 소년시절에 쓴 작품들을 실린 것과 같은 의미에서 여기에 수록한 것이다.³⁶⁾

『이상한 꿈』은 1958년 2월 5일 경문사에서 발간되었으며, 10편의 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문 (1)에 따르면, 발간 당시 「철이와 우산」을 제외한 9편은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에 방송한 라디오문학이다. 그러나 『선집』의 인용문 (2)는 저간의 상황 변화를 보여준다. 『선집』에 「코끼리와 악어」와 「간다라의 소원」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중 「코끼리와 악어」는 『방송』지에 수록된 방송동화다. 이에 반해 「간다라의 소원」은 1971년 『새소년』 1월호에 발표한 동화로 방송 전파를 탄 것으로 보기 힘들다. “주료”라는 표현이 환기하듯, 「철이와 우산」과 「간다라의 소원」은 어린이시간에 방송된 방송동화들에서 예외적이다.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로 확정 가능한 것은 결국 10편인 셈이다.

당시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길이로 보면 모두 단편동화에 해당된다.

그림들은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았던 장수 프로그램 <누가 누가 잘하나>와 <무엇일까요>를 일부 본 따 인기를 누렸으나 오랫동안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35) 안동민(1958), 「후기」, 앞의 책, 134쪽.

36) 안동민(1974), 「후기」, 앞의 책, 488쪽.

그러나 순수창작극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디오동화들은 앞선 라디오소설과 달리 작품 말미에 창작일자를 밝혀두지 않았고, 방송 일시도 불분명하다. 각 일간지에 수록된 ‘라디오 방송안내’는 <어린이시간>을 예고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새내기 작가 안동민의 활동 정황은 더욱 그러했다. 라디오소설을 다수 발표했던 1957년 전후 ‘라디오 방송안내’에서도 그의 라디오동화는 쉬게 발견할 수 없다. 대신 신문매체에서는 그의 작품을 더러 찾아볼 수 있다. 동화집의 표제작 『이상한 꿈』이 대표적인데, 이 동화는 『한국일보』에 전5회(1957.4.14.~5.12)로 연재되었다. 방송일시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라디오 방송 전후 사정을 따져 밝히기는 힘들다. 하지만 라디오방송을 통해 입문한 안동민의 경우도 잡지나 신문매체로 입지를 넓히면서 기존 작품이 다시 라디오동화로 전파를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디오방송에 깊숙이 관여했던 강소천만 보더라도 발표매체를 별도로 제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디오문학이 그러했듯 라디오동화도 관행적으로 순수 창작물로만 소통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방송동화가 매체적 특성을 살려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Ⅲ. 라디오동화의 창작적 지향과 실천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이상한 꿈』에 수록된 9편과 『선집』 제3권에 수록된 1편을 더해 10편이 문헌으로 남아 있다. 그의 라디오동화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안동민의 라디오동화와 내용

작 품 명	작 품 내 용
이상한 꿈	당나라 말 매관매직한 이몽은 한 노인의 꾀로 개과천선한다.
물고기의 소원	오랜 옛날 햇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날치로 거듭났으나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
메리 이야기	수남은 총명했던 메리가 광견병으로 죽는 걸 지켜보는 슬픔을 겪는다.
철이와 앵무새	철이는 동남아로 출장 간 아저씨에게 선물 받은 앵무새가 죽은 후 더 이상 사 달라 조르지 않는다.
참새가 된 두남이	두남이 참새 새끼를 키우려고 고집피우다 낮잠에서 깬 후 그 새끼를 풀어준다.
사진 한 장	경일은 친어머니가 따로 계신 걸 알고 머쓱해하다 편찮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한다.
영수와 스케이트	영수는 아빠의 선물을 받고 처음 스케이트화를 직접 사보았으나, 결국 구매 실수로 다치게 된다.
돌쇠와 이상한 노인	효자인 돌쇠는 노인의 예견을 무시하고 사람을 구한 후 도리어 근심을 덜게 된다.
아름다운 아침	영옥은 늦잠 버릇을 고치려 등산을 갔다가 철쭉을 꺾어 순경에게 꾸중을 듣는다.
코끼리와 악어	아기 코끼리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돌아다니다 악어에게 물려 지금처럼 코가 길어지게 된다.

[표 2]에서 보듯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다양한 제재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옛이야기 형식을 취한 「이상한 꿈」이나 우화 형식을 갖춘 「물고기의 소원」, 그리고 어린이들의 사소한 일상을 다룬 「영수와 스케이트」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두루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어린이문학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의 라디오동화가 지닌 특징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방송에 걸맞은 특정한 형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상한 꿈』과 월간 『방송』에 수록된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들은 서술방식에서 여느 매체에 발표된 동화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①

「엄마 벌레들은 왜 저렇게 원수처럼 싸우나요?」

하고 어린 코끼리는 아무래도 그 까닭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귀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코끼리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저마다 살기 위해서 저보다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거란다.」

하고 어머니 코끼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숲속에서 돌아가신 거로군요.」

하고 새끼 코끼리는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우리들에겐 사자는 무서운 적이란다. 너두 조심해야 한다.」

「사자뿐인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 안동민, 「코끼리와 악어」 가운데서³⁷⁾

②

선 응 그런데 언니, 나 외투(外套) 사 줘.

해설 선길이는 요새 학교 아이들이 외투를 입고 오는 것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외투를 사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원 외투하고 산술하고는 문제가 틀린다.

선 그래도 언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노-란 금단추를 단 외투를 입고 있는데 뭐-. 나도 사 줘 응?

해설 선길이는 이렇게 형한테 졸랐습니다.

— 박의섭, 「외투」 가운데서³⁸⁾

인용문 ①은 『방송』지에 수록된 라디오동화 「코끼리와 악어」의 일부 분이다. 우화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작품은 항상 곁에 있으라는 엄마 코끼리의 당부를 듣던 아기 코끼리가 벌레들의 다툼을 보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장면이다. 이 대목의 기술방식은 여느 동화와

37) 안동민, 「코끼리와 악어」, 『방송』 제3권 제10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10, 74~75쪽.

38) 박의섭, 「외투」, 『라디오 가족여행 경성-목포』, 모시는사람들, 2009, 171쪽.

다르지 않다. 작품이 수록된 『방송』은 창작 담당층이 “전 달 방송극 가작(佳作)을 일편씩(一篇式) 그대로 게재”하여 “후배들의 연구 자료로서 많은 참고”가 되도록 요구한 바 있었고,³⁹⁾ 그에 따라 문예물의 수록은 “전 달에 방송된 작품 중 가장 인기를 얻은 것”을 원칙으로 삼은 바 있다.⁴⁰⁾ 그러니까 『방송』에 수록된 작품들은 한 달 전 방송된 인기 작품을 선택해 방송대본 그대로 게재한 셈인데, 라디오드라마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는 큰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방송대본으로 보기 힘들만큼 여느 매체에서 대할 수 있는 서사형식을 보여준다.⁴¹⁾ 그것이 실제 방송대본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잡지매체에 걸맞은 형식으로 고쳐 쓴 것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라디오동화 「코끼리와 악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가운데 인용문 ②는 방송대본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박의섭이 편역한 라디오 소년소설 「외투」라는 작품으로, 1939년 1월 9일 전과를 땀던 방송대본의 일부다. 학교에 다니는 동생 선길이가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형 원길에게 외투를 사달라고 조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의 서술방식은 앞선 「코끼리와 악어」와 현격히 다르다. 『방송』지에 수록된 라디오동화와 달리 라디오드라마 형식과 닮아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방송대본의 첫머리에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칸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을 구분하여 대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술자 혹은 화자의 지문은 ‘해설’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방송대본에 있어서 라디오문학이 라디오드라마와 유사한 형식으로 재편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방송대본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낭독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

39) 좌담회, 「방송문예향상을 위하여」, 『방송』 제2권 제9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9, 9쪽.

40) 「편집후기」, 『방송』 제2권 제11호, 방송문화연구실 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11, 120쪽.

41) 라디오소설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라디오소설은 방송만을 위해서 방송에 맞는 원고를 쓰는 일조차 거의 없었고, 따라서 “활자로 되어지는 것과 방송으로 나가는 것”의 분간이 없었다. 한국방송공사 편, 앞의 책, 177~178쪽.

할 수 없다. 방송대본에서 등장인물만 소거하면 일반 서사형식과 다를 바 없다. 주로 라디오방송에 낭독되었던 라디오문학이 창작보다는 기존 작품을 그대로 혹은 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⁴²⁾는 점에서 방송대본이라는 매체적 전환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했을 수 있다. 대사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라면 방송대본을 따로 둘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방송작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상황에서 방송대본으로 따로 재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라디오동화나 라디오 소년소설은 여건에 따라 방송대본과 일반 서사형식을 번갈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안동민은 어린이문학, 좁게는 라디오동화의 기준을 ‘동심’에 두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어린이문학은 개념 정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문학 장르다.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류표’나 ‘듀이십진분류표’만 보더라도 어린이문학은 ‘문학’이나 ‘한국문학’이 아닌 ‘기타문학’에 포함되어 있다.⁴³⁾ 어린이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한 결과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이’라는 한정사와 관련된다. 이 한정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⁴⁴⁾ 혹은 “어린이를 위한”⁴⁵⁾과 같은 독자층 문제와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어린이문학은 독자층으로 어린이를 상정한 특수문학인 셈이다.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소설이 곧 소년소설이나 동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참다운 의미에서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본 동심세계를 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동화의 세계가 성립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42)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의 라디오소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257~258쪽.

43) 대학에서 어린이문학 강좌는 도서관학과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강소천에 의해 시도되었다. 박창해, 「소천 강선생의 생애와 아동문학」, 『강소천아동문학전집』 제11권, 문음사, 1981, 334쪽.

44)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1984, 9쪽.

45) 최태호, 「소천의 문학세계」, 『강소천아동문학전집』 제10권, 문음사, 1981, 227쪽.

그렇다고 동화라고 이름붙인 작품이 모두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인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대체로 보아, 동화는 어린이만을 위해서 쓰인 것과 어른과 아이들을 위해 쓰인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고기의 소원」, 「철이와 앵무새」같은 작품은 전자에 속한 것이며, 「이상한 꿈」, 「돌쇠와 이상한 노인」같은 것은 후자에 속하지 않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⁴⁶⁾

문제는 어린이문학의 특수성이 여러 오해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상한 꿈』을 발간할 당시 안동민이 주목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는 어린이문학이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소설”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인 것”만도 아니라고 본다. 동화는 한정된 주체나 독자에 따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동민은 어린이문학을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동심’에 주목한다. 동심은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획득 가능한 것이며, 동화는 그러한 동심세계를 구현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동화는 어린이의 시선으로 발견한 내면과 풍경인 셈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발견이 근대적 주체의 내면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⁴⁷⁾ 동심은 어린이의 마음속에 있는 자명한 현실이나 본질적인 상태를 표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린이를 통해 그러한 동심을 찾고자 하는 어른들의 시선을 전제한 것이다.⁴⁸⁾ 근대의 어린이 표상으로서 동심은 근대적 개인이 당면한 부채와 결핍, 무기력과 참담함, 일탈과 해방 등의 이미지를 타자화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동심은 계급주의 어린이문학의 현실주의 동심과는 달리, 1920년대 방정환으로 대표되는

46) 안동민(1958), 앞의 책, 135쪽.

47) 가라타니 고진, 「아동의 발견」,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민음사, 1997, 151~179쪽.

48) 박숙자, 「1920년대 아동의 재현양상연구」, 『어문학』 제93집, 한국어문학회, 2006, 415쪽.

‘동심주의’와 바뀌 쓸 만큼 어린이의 ‘순수’를 표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의 ‘순수’라는 표상은 식민지 현실을 맥락화한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기획의 결과 하나의 기의로 고착된 감이 없지 않다. 한국전쟁의 참화와 재건의 패러다임 속에서 부상한 ‘동심’ 또한 상이한 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소통되었다. 안동민이 내세운 ‘동심’ 또한 어린이의 순수를 표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동민은 어린이문학의 창작과 수용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동화 창작은 어린이가 아닌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본 동심세계를 그릴 수 있”는 성인작가의 몫임을 전제한다. 독자층 또한 그러한 동심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만을 위해서 써진 것”과 “어른과 아이들을 위해 써진”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 이는 동심의 접근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전자는 「물고기의 소원」처럼 우화 형식이 지니는 재미에 쉽게 몰입하고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에 반해 후자의 「이상한 꿈」은 옛이야기를 빌어 ‘지금 여기’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맥락화해 보편적인 가치에 도달하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을 택한다. 동화의 독자층 분화가 동심에 대한 접근방식을 수준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하겠다. 그것이 안동민의 동화가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재현될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창작방법으로 단순성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성은 주요 청취자인 어린이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청각매체인 라디오는 다른 시각적 혹은 시청각적 매체에 비해 의미 전달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라디오동화에서 가장 요구되는 요소 또한 단순성이다. 라디오동화는 대개 15분간 방송되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⁴⁹⁾ 복잡하고 애매한 이야기보다 쉽고 단일한 이야기를 간결하게 재현해야

49) Vincet McInerney, *Writing for Radio*, Manchester UP, 2001, p.58.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성은 안동민의 라디오동화가 공통적으로 지닌 자질이다. 단일한 이야기를 기술한 단편동화들이다. 서사는 단일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청취자인 어린이로 하여금 서사 자체에 대한 이해력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일례로 “어린이만을 위한” 라디오동화 「물고기의 소원」을 보자. 「물고기의 소원」은 날치의 유래를 서사화한 우화 형식의 작품이다. 서사는 날치가 당면한 하나의 갈등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전면화하고 있다. 날치의 갈등상황은 바다 속에 자신들을 노리는 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산호초에 몸을 숨겨도 해결되지 않는, 인어(人魚)같은 외양을 한 “주근”과 상어, “문어와 독(毒)공”, 해초 등으로 인해 근심이 가득하다. 떼를 지어 다니는 나름의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긴다. 이때 새로운 해결책은 햇님에게 소원을 빌어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날치는 이제 “바다 위 세계”를 꿈꾸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서사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과 맞닿아 있다. 미체험의 세계에 대한 지향은 누적된 체험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 자체에 대한 욕망이어야 한다. 그럴 때 동심이 환기하는 어린이의 순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⁵⁰⁾ 햇님에게 소원을 빈 다음날 날치는 지느러미의 변화에 대한 놀라고, 햇님에게 바다 밖의 세계를 보게 된 기쁨과 만족감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들은 그러한 어린이의 순수성과 닮은 듯하다. 그러나 뒤이은 날치의 현실은 “후회할” 것이라는 햇님의 우려대로 이전보다 더 위험해지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도 없다. 우화 형식을 차용한 이 동화는 도덕적인 가치기준에 걸맞은 알레고리적 의미를 내장하고 있다. 날치가 보여준 순수성은 그러한 의미명과 병치된다. 이전보다 더 큰 갈등을 낳은 날치의 현실을 통해 분별없는 욕망에 대한 경계와 겸허한 태도를 강하게 환기시키는 것이다.

단순성은 어린이문학의 외적 자질에서 첫 번째로 꼽는 요건이기도 하

50) 현길언, 『어린이 서사이론과 창작의 실제』, 태학사, 2008, 46~47쪽.

다. 페리 노들먼은 단순성을 “단순하되 반드시 가장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⁵¹⁾ 어린이문학의 단순성은 단지 단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심층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순성이어야 한다. 즉 작품의 중층성으로 깊은 울림을 동반하는 공명을 주문한 것이다.⁵²⁾ 같은 맥락에서 김상욱은 단순성을 그 자체로서 단순한 현실이 고결함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본다. 어린이문학은 소박한 단순성에서 다층적인 공명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물고기의 소원』에서 날치의 순수성과 도덕적 가치기준 사이의 공명은 라디오동화의 단순성이 지향할 바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나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들이 모두 단순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화 형식을 차용한 라디오동화들에 비해 옛이야기나 생활동화는 단순하기만 한 단순성에 그친다. 게다가 극적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상한 노인이 등장하는 우연성(『돌쇠와 이상한 노인』), 아무런 계기나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비개연성(『사진 한 장』), 그리고 늦잠버릇을 고치려는 산행과 철쭉을 꺾는 사건의 이원화(『아름다운 아침』) 등은 단일한 서사의 흐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명을 동반하는 단순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이 안동민의 라디오동화가 지닌 한계이기도 하다.

넷째,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어린이의 기준을 이끌어내는 계몽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디오동화는 여느 어린이문학처럼 예술성과 계몽성의 조화를 꾀해야 하지만 창작적 실천은 쉽지 않다. 어린이문학에서 계몽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잘 빚어진 어린이를 내세워 시민

51) Perry Nodelman, *The Pleasure of Children's Literature*, Longman, 1996, p.170.

52) Perry Nodelman, “Pleasure and Genre: Specul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Children's Literature* 28, Hollins University, 2000, pp.4~5.

53) 김상욱, 「어린이문학의 장르론적 특성」,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96쪽.

적 규범을 강조해왔고,⁵⁴⁾ 때문에 예술성에 대한 곡해는 여전하다. 계몽성의 강화가 어린이문학의 재미를 감퇴시키는데도 교육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⁵⁵⁾ 청취자인 어린이의 기대와 요구에 주목해야 하는 안동민의 라디오동화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①

「비록 내 팔이라도 그것이 찢어져 가고 있어 그대로 두어두면 몸까지 죽이게 될 경우에는 잘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알겠냐, 내 말……」

수남이는 잠잠고 고개만 끄덕여 보였습니다.

「너는 여지껏 슬프다는 것을 몰랐었다. 그러나 오늘 너는 슬픈 것을 느꼈을거야.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해야 하는 거다. 사람은 이런 슬픔을 통하여 싫드래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두 눈에도 이슬과 같은 눈물방울이 고여 있었습니다.

— 안동민, 「메리 이야기」 가운데서⁵⁶⁾

②

「할 수 없지 어떡허냐. 내 보아서 또 한 쌍을 얻어다 주도록 힘쓸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아니예요. 전 인제는 다시는 앵무새를 길르지 않겠어요. 그것도 사람 처럼 서로서로를 애길 줄 안다는 것을 저는 이번어야 알았어요. 제가 잘

54) 위의 책, 24쪽.

55) 근대 어린이문학이 성립되고 교육제도가 정착되는 가운데 어린이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일찍부터 논의선상에 올랐다. 어린이 문학교육은 식민지 제도교육에 편입되어 파행적 양상을 띠는 가운데 신문·잡지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화운동이 개진되면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갔다. 박영기, 『한국근대아동문학교육사』, 한국문화사, 2009, 317~329쪽. 이 시기 어린이 문화운동은 창작의 텃밭을 일구고 곧추세우는 한편 대항담론으로서 어린이문학의 계몽성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광복 후 어린이문학 또한 그러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해왔다. 최경희,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3, 59~107쪽.

56) 안동민, 「메리 이야기」, 『이상한 꿈』, 앞의 책, 57쪽.

못해서 한 마리라도 죽이면 또 한 마리도 따라 죽을게 아니에요. 전 그런 슬픈 일을 또다시 앵무새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오나, 네 마음은 잘 알겠다.」

하고 아저씨는 한손으로 철이의 머리를 가만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 안동민, 「철이와 앵무새」 가운데서⁵⁷⁾

인용문은 모두 라디오동화의 마지막 부분이다. 인용문 ①은 광견병에 걸린 메리를 떠나보낸 후 어머니가 수남을 타이르는 장면이다. 메리는 늑대에게 새끼를 구하러다 광견병에 걸렸고, 수남의 부모는 그런 메리를 사냥꾼에게 부탁하여 총살시키기로 결정한다. 수남은 그러한 결정에 반대하며 부모를 원망하는데, ①에서 수남을 타이르는 어머니는 작중인물이자 서술자이며 작가와 다를 바 없다. 작가는 작중인물 어머니를 내세워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분히 권위적이고 계몽적이다. 어머니는 위계적 위치에서 수남에게 아버지의 법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질서를 변론하고, “알겠냐”라는 확인 질문을 통해 수남이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그러자 “엄마나 아빠는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던 수남은 간곳없고 “점잖고 고개를 끄덕이는”, 다소곳한 수남만 남겨져 있다. 수남은 “어른”의 세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 “이슬과 같은 눈물방울이 고여” 있는 감성적 측면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감할 수 있는 상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적 성장 계기는 메리의 죽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계몽적 언술에 있다. 수남은 더 이상 어린이 자체가 아닌 어른이 바라는 어린이로 변모되어 있는 것이다.

인용문 ②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철이는 동남아로 출장가는 친척 아저씨 덕분에 소원대로 앵무새를 키우게 된다. 말을 곧잘 따라하던 앵무새였으나 한 마리가 죽자 뒤이어 다른 한 마리도 죽고 만다. ②는 슬퍼하던 철이가 아저씨의 위로를 뒤로 하고 앵무새를 키우지 않겠다고

57) 안동민, 「철이와 앵무새」, 위의 책, 75~76쪽.

다짐하는 대목이다. 철이의 다짐은 ①의 수남과 달리 앵무새의 죽음을 계기로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철이의 발언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하지만 전 다른 건 싫어요.”하며 앵무새를 사 달라 조르던 철이는 더 이상 없다. 대신 “그런 슬픈 일을 또다시 앵무새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조숙한 발언을 스스로없이 하고 있다. ①과 달리 철이가 작가의 의도를 대변하는 작중인물인 셈이다. 철이의 언술은 위계적이지 않지만 다분히 계몽적이다. 그것은 앵무새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두 인용문에서 보듯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작중인물을 통해 작가의 계몽적 의도를 피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중인물은 개성적인 인물로 창조되기보다 작가의 계몽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 장치로 존재한다. 작중인물이 어른이나 어린이나 하는 것은 서술태도의 위계성을 달리 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항상 어른인 관찰자의 위치에 서 있다. 관찰자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관찰자의 정서적 요소가 결과에 분명히 작용하는 것이다.⁵⁸⁾ 대부분의 라디오동화에서 안동민은 어린이의 의식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계몽적 관찰자를 자처하고 있다. 그 결과 어린이의 형상은 어린이의 실체에 맞닿아 있기보다 어른이 바라는 “착한 어린이”로 부각된다. 안동민이 라디오동화의 창작원리를 “동심”에 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착한 어린이”는 어린이의 ‘순수’와 대당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그는 “착한 어린이”를 어린이의 ‘순수’를 간직한 이상적인 어린이상, 그러니까 어린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를 여전히 ‘미숙함’, ‘불완전함’,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린이의 접근방식과 기준은 그의 라디오동화에서 계몽적 성격을 정당화하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안동민의 라디오동화가 지닌 계몽성은 당시 사회역사

58) Marie-Louise von Franz, 홍성화 옮김, 『아동심리학』, 교육과학사, 1986, 17쪽.

적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우선, 라디오동화는 당시 국영방송의 운영지침에 부합해야만 했다. 1950년대 중반 라디오서사의 창작 담당층이 체감하는 방송지침은 크게 경직되어 있었다. 일례로 박진은 “국토의 양단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로서 멸공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민주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건설한 내용의 목적을 간직한 작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요안은 “국민생활 명랑화를 근본적으로 다루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시책에 호응하도록 하는 의식의 고취가 은연중 내포되어 있어야 되며 점진적으로 청취자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⁵⁹⁾ 서울중앙방송국의 방송지침은 국가정책의 목표와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라디오동화 또한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런 점에서 라디오동화의 계몽성 강화는 경직된 방송지침에 걸맞은 창작 기준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어린이문학에 대한 접근방식도 한뼘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복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새로운 세대인 어린이에 주목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잡지들과 일간지 소년판이 잇달아 나오는가 하면,⁶⁰⁾ 전국적인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날 노래 유포에 이은 어린이 헌장 제정⁶¹⁾ 등이 이루어졌다. 조직적인 문화운동이 소원한 가운데 1954년 한국아동문학회가 결성되어 어린이예술제 등을 이끄는 한편 『현대한국아동문학선집』 발간과 우량아동도서 추천 등에 앞

59) 좌담회, 「방송문예향상을 위하여」, 『방송』 제2권 제9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9, 4쪽.

60) 이재철은 1950년대 어린이문학의 특성을 어용적·고식적 교훈물과 오락물이 범람했던 통속광창기로 규정하였다. 전후의 혼란상을 대변하듯 당시 발간된 잡지와 어린이신문들은 다양한 성향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어 순수한 아동문학을 키워나가기 힘들었다고 본다.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94, 96~99쪽.

61) 1957년 결성된 한국동화작가협회는 어린이헌장을 성문화하여 발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심의·수정하여 같은 해 5월 5일 어린이헌장을 제정·발표하였다.

장서 제도교육에 편입하는 어린이문학의 자리를 분명히 하였다.⁶²⁾ 제도 교육은 ‘민주, 반공, 애국’으로 대표되는 1950년대 국가주의 가치들을 도의교육에 통합시켜 재편해가는 가운데 국가재건에 기초가 되는 순종적인 국민상을 규정하고 실천하는 통제적 성격을 띠었다.⁶³⁾ 초등 국어과 교육도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⁶⁴⁾ 대표적인 작가 강소천만 하더라도 한국전쟁기 월남하여 문교부 편수국⁶⁵⁾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가 하면,⁶⁶⁾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여했다.⁶⁷⁾ 전후 동화창작에 열중하였던 강소천이 “교육적 아동문학”⁶⁸⁾ 경향을 띠었던 것도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강소천의 영향력이 새내기 어린이문학가 안동민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린이를 위한 문학”을 주장하며 계몽

62) 조은숙, 「해방~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어동문학전(선)집 편찬과 정전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79~282쪽. 조은숙은 이 시기 전(선)집류에 주목하여 어린이문학의 정전화를 논의하고 있으나, 같은 맥락에서 당대의 ‘우량아동도서 추천’ 또한 눈길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 여긴다.

63) 이유리, 「1950년대 ‘도의교육’의 형성과정과 성격」, 『한국사연구』 제144집, 한국사연구회, 2009, 270~279쪽.

64) 허재영, 「과도기(1945~1955)의 국어과 교과서」, 『교육한글』 제16집, 한글학회, 2004, 59~90쪽.

65) 1948년 11월 8일 대통령령 제22호로 ‘문교부 직제’가 공포되면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문화국과 함께 편수국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문교부 편수국은 교과서의 편찬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국전쟁기를 거쳐 1950년대에도 교과서의 저작 검인정, 교재 개발과 저작권, 편찬 규정과 심의 등과 함께 변화된 교육목표에 걸맞은 교수요목과 교육과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허강, 『한국편수사연구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2001.; 허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일진사, 2004.

66) 강소천은 전쟁기 외에도 1959년 10월에 다시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 심의위원과 국정교과서 편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67) 강소천은 “『어린이시간』 방송을 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퇴근 후 곧장 귀가했을 정도로 <어린이시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강소천, 「『어린이시간』, 『방송』 제3권 제10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10, 41쪽.

68) 이재철, 앞의 책, 99쪽.

성에 무게를 두었던 강소천의 작품세계가 동화집 ‘후기’에서 안동민이 밝힌 “어린이를 위한” 혹은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과 같은 발언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들이 모두 강소천이 관여했던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에 방송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IV. 결론

지금껏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눈길을 두지 않은 분야다. 식민체제에서 출발한 라디오방송은 오랫동안 고급매체의 권좌를 누리다 대중매체로 진입하기 무섭게 TV로 옮겨가 짧은 라디오시대를 만끽했을 뿐이다. 게다가 열악한 방송시설과 창작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라디오문학은 망실된 방송자료와 마찬가지로 숨은그림찾기처럼 여전히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발표매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까닭에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동화집”이라는 부제를 내세운 안동민의 『이상한 꿈』은 극히 예외적인 작품집이다.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을 통해 방송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안동민이 라디오동화를 창작한 계기는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 담당자였던 한용희의 추천에 의해서였다. 1950년대 중반 서울중앙방송국은 방송여건이 개선되었는데도 라디오문학 창작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방송책임자였던 한용희는 라디오소설가로 명망을 쌓아가던 신진작가 안동민을 독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독려한 지원에도 안동민은 라디오동화의 창작과정에서 큰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헌으로 남겨진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는 총 10편이었다. 다양한 서사형식을 보여주는 단편동화들이지만, 라디오방송을 통해 창작된 순

수 창작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방송일시가 불분명한 데다 관행처럼 기존 작품을 방송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관행이 라디오동화의 질적·양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임은 자명했다.

안동민의 라디오동화가 지닌 특징적 면면은 우선, 라디오매체에 걸맞은 서사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박의섭의 방송대본에 견주어 본다면, 안동민의 라디오동화들은 활자매체에 발표된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열악한 창작환경과 방송관행으로 볼 때 방송대본의 형식을 따로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다음으로, 안동민은 라디오동화의 창작방법으로 단순성 확보에 주목하고 있었다. 주 청취자인 어린이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단일한 이야기가 공명을 획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우화 형식에 비해 다른 서사형식의 라디오동화들은 그러한 단순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동민은 라디오동화의 창작원리로 ‘동심’에 주목했지만, 창작적 실천에는 어린이의 기준을 이끌어내는 계몽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동심이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획득 가능한 어린이의 순수를 표상한다면, 계몽적 성격을 내장한 어린이의 기준은 어른이 바라는 ‘착한 어린이’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국영방송의 경직된 운영지침과 어린이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린이시간>에 깊이 관여했던 강소천의 영향 등이 복합된 결과로 보였다.

어린이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연구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금 여기 어린이문학의 자리만큼이나 어린이문학의 근거와 역사성을 탐색하는 돋보이는 연구들이 적지 않다. 어린이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점을 이끌고 있는데도 특정 시대와 작가들에 치중되는 양상은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문학의 발표매체 문제는 다시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라디오방송 어린

이문학, 좁게는 라디오동화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이문학의 지평을 확대하고 심화시킬 텃밭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안동민, 『이상한 꿈』, 경진사, 1958, 1~135쪽.
- _____, 『동민대표문학선』, 동민문화사, 1971~1974.
- _____, 「코끼리와 악어」, 『방송』 제3권 제10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10, 74~76쪽.
- _____, 「춘원 이광수론」, 『현대문학』 제6호, 1955.6, 44~51쪽.
- _____, 『심령진단』, 서음출판사, 1994, 196~209쪽.
- 한낙원·안동민, 『2064년/우주소년삼총사』, 동민문화사, 1972, 1~387쪽.
- 박의섭, 「외투」, 『라디오 가족여행 경성-목포』, 모시는사람들, 2009, 163~178쪽.
- 좌담회, 「방송문예향상을 위하여」, 『방송』 제2권 제9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9, 4~9쪽.
- 「편집후기」, 『방송』 제2권 제11호, 방송문화연구실 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11, 120쪽.
- 「방송동화집 『이상한 꿈』」, 『방송』 제3권 제3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3, 60쪽.
- 「新夏문단의 청신제」, 『경향신문』, 1952.5.18, 2면.
- 「안동민 「성화」 중서 출판」, 『경향신문』, 1995.9.2, 13면.
- 유종호, 「1961년의 白書 小説」, 『동아일보』, 1961.12.8, 4면.
- 정한숙, 「독후감-안동민 소설집 “문”」, 『경향신문』, 1958.1.30, 4면.
- 『방송』 제1권 제1호~제6권 제4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6.9~1959.12.
-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1950.1.1~1959.12.31.

2. 연구 자료

- 김상욱, 「어린이문학의 장르론적 특성」,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83~99쪽.

- 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과정에 대하여」,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편, 국학자료원, 2000, 55~92쪽.
- 박숙자, 「1920년대 아동의 재현양상연구」, 『어문학』 제93집, 한국어문학회, 2006, 413~431쪽.
- 박영기, 『한국근대아동문학교육사』, 한국문화사, 2009, 1~342쪽.
- 박창해, 「소천 강선생의 생애와 아동문학」, 『강소천아동문학전집』 제11권, 문음사, 1981, 332~335쪽.
-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36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365~435쪽.
-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1984, 1~355쪽.
- 이유리, 「1950년대 ‘도의교육’의 형성과정과 성격」, 『한국사연구』 제144집, 2009, 239~283쪽.
-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94, 1~394쪽.
- 조은숙, 「해방~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아동문학전(선)집 편찬과 정전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59~286쪽.
- 최경희,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3, 1~204쪽.
- 최미진,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363~388쪽.
- _____, 「1950년대 장덕조의 라디오소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249~282쪽.
- _____, 「손창섭의 라디오 단편소설 「비둘기 한 쌍」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07~231쪽.
- _____, 「한국전쟁기 『경향신문』의 문화면과 김광주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337~367쪽.

- 최태호, 『소천의 문학세계』, 『강소천아동문학전집』 제10권, 문음사, 1981, 221~227쪽.
- 한국방송공사 편,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125~330쪽.
-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8, 127~141쪽.
- 허 강, 『한국의 김인정 교과서』, 일진사, 2004, 1~466쪽.
- 허재영, 『과도기(1945~1955)의 국어과 교과서』, 『교육한글』 제16집, 한글학회, 2004, 59~90쪽.
- 현길언, 『어린이 서사이론과 창작의 실제』, 태학사, 2008, 1~232쪽.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151~179쪽.
- 마리아 니콜라예바, 김서정 옮김, 『용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2002, 1~322쪽.
- Marie-Louise von Franz, 홍성화 옮김, 『아동심리학』, 교육과학사, 1986, 1~230쪽.
- Perry Nodelman, *The Pleasure of Children's Literature*, Longman, 1996, pp.1~313.
- Perry Nodelman, "Pleasure and Genre: Specul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Children's Literature* 28, Hollins University, 2000, pp.1~14.
- Vincet McInerney, *Writing for Radio*, Manchester UP, 2001, pp.55~77.

<Abstract>

A Study on Radio Fairy Tales by An, Dong-min in the 1950s

Choi, Mi-Jin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base of children's broadcas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radio fairy tales through the children's stories on the radio written by An Dong-min in the 1950s. He first created fairy tales for radio broadcast on the recommendation of Han Yong-hui who was in charge of <Children's Time> at Seoul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This seemed to have resulted from the increasing reputation of Han Yong-hei as a radio novelist when the broadcasting conditions in the mid-1950s improved while writers for radio literary works continued to lose ground. An Dong-min, however, had hard time in creating children's stories for radio programs. Though uncommon, his radio stories were published in a book titled "Strange Dream", and ten of his short fairy tales are currently available for reference. Back then, existing literary works which had already been introduced in other media were broadcast most of the time, so not all of his radio stories for children can be seen as a pure literary creation. This literary creation and broadcasting practice at the time must have been an obstacle for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of children's stories broadcast on the radio.

As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adio fairy tales by An Dong-min, his works did not comply with literary styles for radio broadcasting. As opposed to Park Eui-seop's broadcast script in the 1930s, which were close to radio drama, his radio stories were almost same with fairy tales published in the print media. Whether this was the result of the transition to the print media or there was no specific format for broadcast script under the unfavorable creative environment at the time remains an open question. Second, he focused on the innocence of children for a principle of his radio fairy tale creation. This represents the purity of children, which can be obtained only 'through children's eyes.' It is up to the writer to get the childlike innocence in creating literary works, which should be received by both children and adults. Third, he emphasized simplicity in creating radio fairy tales.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 the main listeners, he clearly presented a story which describes how a simple conflict is resolved. Simplicity, one of the qualities that children's literature has, is used to resonate, but children's stories on the radio, compared to fables, were not that successful in achieving the simplicity. Fourth, his works were strongly enlightening by guiding the listeners to children's criteria. The characters in his radio fairy tales were used as a medium to deliver his purpose of educating children, where the writer, as an enlightening observer, considered a 'good child' to be a standard. Good children with innocent mind were seen as an ideal model. This seemed to be a result from several factors, including rigid operation guidelines set by the national broadcasting station at the time, people's interest in children's education and Kang So-cheon's

influence who was deeply involved in <Children's Time>. These showed that An Dong-min tried to adapt to the environment for literary creation at the time to create radio fairy tales, but his literary achievement was not very impressive.

Key Words : An Dong-min, radio fairy tales, “Strange Dream”, “Broadcast”, radio broadcast, Seoul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Children's Time>, innocence of childhood, simplicity, enlightenment, ‘A Good Child’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KYOBO
교보문고